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누가 덕 높은 스승인가

학승이 물었다. “옛날부터 고덕(高德)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였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물어서 비로소 고덕(高德)이 있는 줄 알았네.”

학승이 말했다. “제발 노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고덕(高德)이 아니야.”

問 從上古德將何示人 師云 不因你問 老僧也不知有古德 云請師指示 師云 老僧不是古德

이때 학인은 대답해서 미친다. 뭘 좀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 대답은 안 해주고 엉뚱한 것으로 말끝을 맺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학인은 조주 스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는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고덕! 누가 덕이 높은 스승인가? 평등한 이 문중에 고덕은 없다. 모두 똑같은 부처이다. 조주 스님이 자기는 고덕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진실이다. 선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학승이 물었다. “부처님의 꽃이 아직 피지 않았을 때 진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것은 진(眞)이요, 이것은 실(實)이다.”

학인이 물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분상에 있는 일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다.”

問 佛花未發 如何辨得眞實 師云 是眞是實 云是什?人分上事 師云 老僧有分關黎有分

부처님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진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조주 스님은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항상 진실하다고 했다. 부처님이 나오지 않았을 때 진실을 항상 진실로 존재한다. 누구든지 부처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중생은 곧 부처이다. 그러므로 진실은 언제나 밝게 드러난다. 따라서 중생이 있는 이상 거짓이란 있을 수 없다. 오직 진실만 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주 스님이 물었다. “자네는 누구인가?”

問 如何是佛 師云 你是什麼人

유명한 말이다. 부처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그대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보라. 휘어서 알지 말고 지금 곧바로 알아라.

학승이 물었다. “곧바로 길을 갈 때는 어떠한가?”

조주 스님이 말했다. “곧바로 가거라.”

問 驀直路時如何 師云 驀直路

곧바로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속 곧바로 가라. 그런데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것부터 알아보는 어떠한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현(玄)중의 현(玄)을 끊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나에게 묻는 것이 현(玄)을 단절하지 않는 것 이야.”

問 如何是玄中不斷玄 師云 你問我是不斷玄

현(玄)이란 깊은 단계이다. 도에 들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깊은 경지에 들어간다. 현 중의 현은 깊은 중에서도 깊은 것을 말한다. 도가 깊어진 현 중의 현의 단계는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흰 수염을 휘날리고 여법하게 설법하는 총림의 방장을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 명심하라. 도가 깊어지면 지극히 평범해진다. 누가 선사이고 보통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평범하다. 그 대표적인 선사가 바로 조주 스님이다. 조주 스님의 깊은 것은 항상 평범함에 있다.

조주 스님은 자기 자신을 ‘촌 늙은 이’ 라고 지칭했고, 고덕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초심자 구참자를 가르치지 않고 방문객을 가장 위대한 자, 부처라고 칭했다. 바로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깊은 것 중에서도 깊은 것을 널리 전파하는 선사의 정신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나는 ‘영혼과 육체는 같다’ 라든가,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리아숫타(Jāliyasutta))

하나의 텍스트는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그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내용이다. 그럼 형식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형식 역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결코 형식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불교 경전을 읽을 때도 내용의 파악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어떤 형식 속에 담겨서 전해지는가? 내용과 형식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역시 살펴볼 일이다. 그럴 때 의외의 재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승경전을 오해하는 까닭도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 전달내용 못지않게 형식에 많은 신경을 쓴 것이 대승경전이다. 가끔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가 대승경전에 등장하는 것도 많은 경우 형식과 관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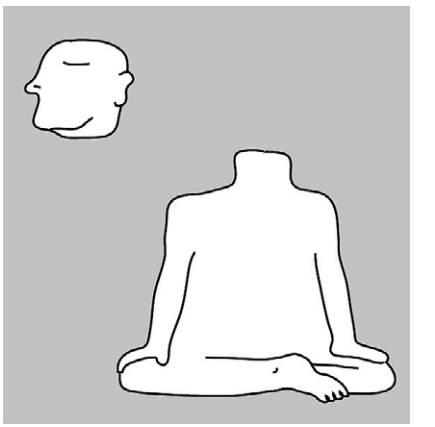
〈절리아 숫타〉는 초기경전이다. 따라서 대승경전의 형식과는 다르다. 그저 소박하게 문답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재미있다. 대답에도 형식이라는 문제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질문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곧바로 대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중앙학의 〈전유경(箭喻經)〉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鬘)동자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 “영혼과 육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등의 질문들이다. 이러한 난문(難問)들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던 것일까? 일단은 침묵(沈?)하셨다. 이를 무기(無記)라고 한다. 이때 ‘기’라는 말은 ‘긍정적인 언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무기는 “예스”이든 “노”든 간에, 분명한 해답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왜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독화살의 비유”를 든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독화살을 뽑고서 치료를 하는 일일 터이다. 그런데 그럴

게 하지 않고, “이 화살은 어느 방향에서 왔는가? 독의 성분은 무엇인가?” 등을 따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독이 퍼져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해탈과 열반을 위하여 수행하는 일이다. 앞서 만동자가 제기한 질문, 즉 “영혼과 육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와 같은 것은 결코 해탈과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절리아숫타〉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부처님의 대답은 〈전유경〉과 달랐다. 점에 있다. 침묵하는 대신, 부처님은 우회하신다. 일종의 동문서답(東問西答)이라 할까? 죽음을 피하신 채, 계율을 설하시고, 선정을 설하시고, 지혜를 설하신다.



그림·박구원

다고, 익히고, 배우야 할 세 가지(三學)를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하나하나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물으신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그 수행승에게 ‘영혼과 육체는 같다’ 라든가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 라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까?”

절리아와 만드씨는 내도록 “타당한 것이다”라고, 잘못된 대답을 한다. 그럼으로써 부처님의 설법을 더욱 청청했던 것인지는 모르나, 그것이 형식이다. 마지막에 와서야 비로소 “타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정답을 제출한다.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스스로 함정을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신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지만, 나는 ‘영혼과 육체는 같다’ 라든가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제삼, <다가 니까야>, 한국배알리성 전협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37)

해탈 방해·생사 반복하는 고통의 근원

번뇌-① 번뇌의 의미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한평생 번뇌를 느끼고 경험하며 그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것이 불교에서 번뇌와 번뇌의 원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이다. 불교의 목표는 번뇌를 끊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시불교에서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수많은 번뇌론은 단순히 철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괴로움을 실제로 없애기 위한 것이다.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번뇌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번뇌(煩惱)란 말은 범어 끝레사(kleśa)를 뜻풀이한 말로 본래 ‘고통’ ‘무지’ ‘욕망’ 등을 의미한다. 혹은 ‘더럽히는 것’이란 뜻으로 염(染), 오(汚), 염오(染汚)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장물에 달라붙어 있는 먼지들처럼 마음에 달라붙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번뇌에 의해 마음이 더럽혀지고 때가 묻으면 바로 그곳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을 모으는 번뇌의 더러움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면 바로 그곳에서 열반의 경지를 달성할 수 있다. 번뇌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어지럽혀 해탈을 방해하는 모든 심신의 장애를 일컫는다. 번뇌야말로 깨달음에 다다르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해탈 수 없이 많은 번뇌는 그 심리작용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 이를테면 번뇌의 또 다른 이름인 수면(隨眠)은 번뇌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채 잠재해 있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조건에 따라 드러나기 때문에 잠자고 있을 뿐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수면이라 한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잠재해 있지 않고 마음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번뇌를 전(顯)이라고 한다.

또한 불교경전에서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괴로움만큼 수많은 번뇌의 종류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의 삼독(三毒)이다. 이 세 가지 번뇌는 다른 모든 번뇌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근본번뇌라고도 불린다. 이 중에 특히 어리석음은 무명(無明)이라고도 하는데 사제와 연기 등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를 뜻한다. 이러한 지적인 면에서의 무지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번뇌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불교 번뇌론의 특징이다.

이러한 번뇌는 업과 관련지어 설명되기도 한다. 예컨대 백팔번뇌는 단순히 많은 번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걸친 번뇌로서 구체적인 예시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인간의 눈·귀·코·혀·몸·마음이라는

감관능력을 통해 대상에 대해 좋음[好], 나쁨[惡], 중지도 나쁘지도 않음[平等]이라는 마음을 일으키므로 18가지 번뇌가 생기고 괴로움[苦], 즐거움[樂],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捨]이라는 마음을 일으키므로 18가지 번뇌가 생기므로 이 둘을 합하면 36가지 번뇌가 되고 이 번뇌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있으므로 108번뇌가 된다.

이러한 번뇌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잠재해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음의 표층에 드러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이든 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드러나는 마음의 번뇌는 그 자체가 지금 행해지는 악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번뇌는 궁극적인 진리에 어긋나고 청정하지 않으며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는 불선(不善)이기 때문이다. 또한 번뇌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행위[身口意三業]의 근원이자 원인이 되는 마음작용이다. 불교에서는 이 번뇌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업과 더불어 생사를 반복하는 고통의 근원으로 보았다.

다만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에 걸림이 없는 보살행에 기반해서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역설했다. 번뇌를 극복하는 방법은 번뇌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우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日 叢 刊 大 佛 教 學 社 · 前 本 誌 記 者**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데모】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데일리】

- 종합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커리큘럼】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희 박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인 우불 김철희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 (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국 설법 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모 심인불교대학 집 제2기생

근본불교(根本佛敎)와 기본교리(基本敎理)는 밀교사상(密敎思想)의 진리(眞理)속에 있다

-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 ◆대 상 : 남녀노소(男女老少) 누구나 환영합니다.
- ◆과 목 : (1) 불교의 기본교리, (2) 밀교사상과 수행법, (3) 만다라의 세계, (4) 현밀(顯密)의 성불론(成佛論)
- ◆강 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
- ◆준 비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제출
- ◆등록금 : 100,000원
- ◆교재비 : 30,000원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전화 031)692-3653 / 팩스 031)692-3654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하여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